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역사 동아리 학생 여러분. 이번 강연을 맡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입니다. 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국보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 문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의 답을 들은 후) 네, 승례문과 홍인지문입니다. 왼쪽의 승례문은 국보 제1호이고, 오른쪽의 홍인지문은 보물 제1호인데요. 둘 다 성문인데 왜 승례문은 국보이고, 홍인지문은 보물일까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정 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번호라고 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국보로 승격되면, 해당 문화재는 보물에서 해제되며 그 보물의 지정번호는 결번으로 남습니다. 승례문처럼 단일 건물일 경우 문화재 한 해당 지정번호가 하나씩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 권이 묶인 책과 같은 경우에는 수량과 상관없이 한 개의 지정번호가 붙습니다. 한편 서책의 경우 동일 제목으로 판본이 유사하다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정축산사고본은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은 국보 제151-2호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의 지정번호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행정상의 관리번호로,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서열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지정번호가 해당 문화재의 가치에 따른 서열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므로 지정번호는 부여하되,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연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문화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2. <보기>는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외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화재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을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학생 2: 역사 동아리 부원이면서도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 이제부터라도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겠어.

학생 3: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해 볼까?

- ① ‘학생 1’은 강연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을 요약하며 듣고 있군.
- ② ‘학생 2’는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군.
- ③ ‘학생 3’은 강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듣고 있군.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며 듣고 있군.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을 듣기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군.

3.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다음의 자료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국보 제319-1호
명칭: 동의보감(東醫寶鑑)
지정일: 2015. 06. 22.
수량: 25권 25책
관리 단체: 국립중앙도서관

『동의보감』은 허준(1539~1615)이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서와 치료법을 엮어 놓은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한의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은 보물 제1085-1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로 승격 지정되었다.

- ① 『동의보감』이 국보로 승격된 이후에 보물 제1085-1호라는 지정번호는 결번이 되었겠군.
- ② 『동의보감』의 경우 수량과 상관없이 25권 25책 모두 각각 다른 국보 지정번호를 부여받았겠군.
- ③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국보 제319-1호라는 지정번호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겠군.
- ④ 『동의보감』보다 『조선왕조실록』의 국보 지정번호가 빠르다고 해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없겠군.
- ⑤ 『동의보감』의 국보 지정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은 동일 제목의 유사한 판본이 있을 수 있겠군.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 ④ 당부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⑤ 강연과 관련된 강연자의 전문성을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4 ~ 7] (가)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축제 준비 위원회에 제출할 건의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먼저 스포츠 축제 준비 위원회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번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두뇌 스포츠 경기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는 ‘다양하게, 모두 함께, 의미 있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도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 스포츠 경기만 계획되어 있어 기획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둑, 체스 등으로 대표되는 두뇌 스포츠는 스포츠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으로도 두뇌 스포츠 종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축제에 두뇌 스포츠 종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에 맞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경기와 함께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스포츠 축제가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지 않거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포츠 축제를 즐기기 어려운데, 두뇌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이런 학생들도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 축제가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두뇌 스포츠는 체력 강화,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 함양 등의 높은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체육관에서 경기를 열면 해소될 것입니다.

(나)

학생 1: 내가 쓴 건의문을 함께 검토해 보자.

학생 2: 예상 독자에게 두뇌 스포츠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두뇌 스포츠의 개념을 둘째 문단에 넣어 주자.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다른 부분은 어때?

학생 3: 국내외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고만 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자.

학생 2: 우리가 수집한 자료 중에 2016년 전국체육대회부터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기사가 있었잖아. 그걸 넣으면 좋겠어. [A]

학생 1: 맞아, 그게 있었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관련 정보도 찾아서 반영해 볼까?

학생 3: 그래, 둘 다 쓰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좋아. 그렇게 둘째 문단을 수정할게.

학생 3: 그런데 셋째 문단에서 두뇌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이상한 것 같아.

학생 1: 두뇌 스포츠에서도 체력은 중요해. 바둑 기사들은 큰 대국을 치르면 체중이 몇 킬로그램 빠지기도 한대.

학생 2: 하지만 두뇌 스포츠는 보통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데,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B]

학생 1: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수정할게.

학생 2: 그리고 두뇌 스포츠가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길러 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

학생 3: 셋째 문단에 그런 내용을 언급한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 어떨까?

학생 1: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야.

학생 3: 넷째 문단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체육관에서 열면 된다고 했는데 축제 일정상 정말 가능할까?

학생 1: 그럼 스포츠 축제 담당 선생님께 여쭙 보는 게 어떨까? [C]

학생 2: 안 그래도 아침에 여쭙 봤는데 그날 오후에는 체육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

학생 1: 다행이다.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반영해서 글을 수정할게.

학생 3: 그런데 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야.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글을 마무리하자.

학생 2: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면 좋겠어.

학생 1: 알겠어. ③ 마무리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글을 써 볼게.

4. (가)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의를 받아들일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제시해야겠어.
- ② 인사말과 함께 건의 주제를 밝혀 예상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겠어.
- ③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던 경험을 밝혀 건의 내용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 ④ 글의 처음 부분에 건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건의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야겠어.
- ⑤ 건의를 받아들일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해야겠어.

5. (나)를 참고하여 ‘학생 1’이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단	고쳐 쓰기 계획
둘째 문단	‘두뇌 스포츠는 두뇌를 활용하여 상대와 수 싸움을 하는 게임입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①
	‘실제로 국내외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실제로 바둑은 2016년 전국체육대회와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②
셋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체력 강화’라는 내용을 삭제해야겠군. ③
	‘바둑 기사 △△△ 9단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둑판은 넓지 않지만 경주의 수가 너무 많다. 한계가 없는 것이 바둑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④
넷째 문단	둘째 문장을 ‘하지만 스포츠 축제 당일 오후에는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⑤

6. [A] ~ [C] 답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말을 재진술하며 ‘학생 1’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학생 2’의 의견에는 반대하고 있다.
- [C]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기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C]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 ‘학생 3’의 대립된 주장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7. ㉔를 반영하여 (가)의 마무리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으로! 두뇌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 흔히 바둑을 신선놀음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땀이 가득한 스포츠 축제 때 우리 모두 바둑이 선물하는 시원한 한 줄기 여유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스포츠 축제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 두뇌 스포츠는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일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 스포츠 축제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8 ~ 10] (가)를 읽은 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나)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신문 기사

○○신문

온라인상 거짓 정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심각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의 글

최근 온라인상에 거짓 정보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인 ‘대나무숲’에도 거짓 정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일들이 눈에 띄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는 그 정보에 언급되는 당사자에게 명예 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용자인 학생들에게는 사실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의사 결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겨 통합을 방해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거짓 정보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거짓 정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과 올바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나무숲’ 게시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회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를 접했을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나무숲’의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대나무숲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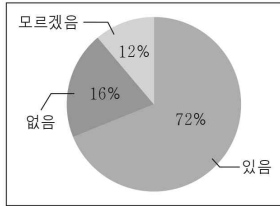
8.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에서 토로하고 있는 고민에 공감하며 (나)를 통해 조언하려고 하고 있다.
-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주변에서 찾아 (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 (가)에 드러난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를 통해 분석하려고 하고 있다.
- (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 (나)를 통해 반박하려고 하고 있다.
- (가)에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여 (나)를 통해 신뢰성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9번과 10번 물음에 답하시오.

㉞ 우리 학교 설문 조사

1.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2.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유형

구분	비율(%)
정신적 피해	69
금전적 피해	20
신체적 피해	11

㉟ 연구 자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 사건을 다루는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차 검증하기’와,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직접 뉴스를 제작해 보는 ‘뉴스 제작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㊱ 이웃 학교 학생과의 인터뷰

“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생회장 후보가 한 적도 없는 말을 실제로 한 것처럼 쓴 글이 게시됐고, 그 글을 무분별하게 유포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글을 사실로 믿는 학생들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㉞ 게시판 관리자가 운영 규칙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댓글을 썼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댓글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그 후보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9. 위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㉞-2를 활용하여, 거짓 정보로 인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제점으로 추가한다.
- ② ㉟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 생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시한다.
- ③ ㊱를 활용하여, 거짓 정보가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겨 통합을 방해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④ ㉞-1과 ㉟를 활용하여, 거짓 정보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교차 검증하기’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다.
- ⑤ ㉞와 ㊱를 활용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게시판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추가한다.

10. <보기>는 ‘대나무숲 운영 규칙’의 일부이다. ㉞의 ㉞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기>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제1조 (게시판의 이용)

- 1항.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2항. 비교육적인 내용의 게시물은 게시하지 않는다.

제2조 (게시판의 관리)

- 1항. 거짓 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은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
- 2항. 게시물이나 댓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 협박, 조롱 등의 언어폭력을 행하는 경우 학생 자치회와 협의하여 게시물을 삭제한다.
- 3항.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경고한다.

- ① 제1조 1항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어를 사용한다.’를 추가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상호간에 예의를 지킬 수 있게 한다.
- ② 제1조 2항의 ‘비교육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상업성 게시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로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규칙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③ 제2조 1항을 ‘거짓 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린다.’로 수정하여 게시물이 거짓 정보임을 모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 ④ 제2조 2항의 내용 중 ‘학생 자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여 언어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한다.
- ⑤ 제2조 3항을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그 이용자의 활동을 한 달 동안 정지한다.’로 수정하여 이용자들이 아이디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표기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한글맞춤법 규정을 따른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 요소가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등에는 표음주의가 채택된다.

이러한 표기 원칙이 제정되기 전 국어의 표기 방식은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만나거나 처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사를 만날 때, 이어적기는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고, 끊어적기는 실제 발음과는 달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끊어 적는 방식이다. 그리고 거듭적기는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에도 다시 적는 표기 방식으로, ‘말씀+이’를 ‘말씀미’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 것이다. 한편 ‘ㄱ, ㅌ, ㄷ’을 ‘ㄱ, ㅌ, ㅌ’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방식인 재음소화 표기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깊이’를 ‘깊히’와 같이 적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11. <보기>는 ‘한글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학습지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 먹고, ㉡ 좋아

[붙임]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예) 돌아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예) ㉢ 사라지다, 쓰러지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ㄷ’이 ‘ㅌ’로 바뀔 적 예) ㉣ 쉽다, 맵다
2. 어간의 끝음절 ‘르’의 ‘ㄹ’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 /-어’가 ‘-라/-러’로 바뀔 적 예) ㉤ 가르다, 부르다

- ㉠은 단어의 기본형인 ‘먹다’와 마찬가지로 표의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 ㉢은 합성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 발음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은 활용할 때, ‘쉽고’와 같은 표의주의 표기와 ‘쉬우니’와 같은 표음주의 표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은 활용할 때, ‘갈라’와 같이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난 경우에는 표의주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멀리서 바람에 ㉠ 노파 하늘해 다하고 갖가이서 보니 아스라히 하늘했 ㉡ 프레 줌것느니
(멀리서 바람에 높이 하늘에 닿았고 가까이서 보니 아스라히 하늘의 물에 잠겼나니)
- 『번역박통사』 -

◦ 고경명은 광궐 ㉢ 사들이니 임진왜란의 의병을 슈창하야 금산 ㉣ 도적글 티다가 패하여
(고경명은 광주 사람이니 임진왜란에 의병을 이끌어 금산 도적을 치다가 패하여)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 ㉤ 붉은 기운이 하늘을 췌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 높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 드러 보니
(붉은 기운이 하늘을 뚫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 『이유당관복유람일기』 -

- ㉠은 이어적기를 하고 있는 반면 ㉡은 거듭적기를 하고 있다.
- ㉢은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고 있다.
- ㉣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끊어 적고 있다.
- ㉤은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에도 다시 적고 있다.
- ㉤은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표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빠르게 분석한 것은?

〈보기 1〉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어 높이는 방법이고,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객체에 해당하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어말 어미, 조사,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보기 2〉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가셨다.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조사	특수 어휘	조사	특수 어휘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4. <보기>는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피동문을 만들 때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짧은 피동을 만들거나, ‘-아/-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긴 피동을 만듭니다. 그런데 ㉠ 일부 능동사의 어근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하여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① 물고기가 낚시줄을 끊었다.
- ② 경민이가 아기의 불을 만졌다.
- ③ 민수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 ④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었다.
- ⑤ 요리사가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15. 다음은 사전 활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의 학습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정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체언의 발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이’와의 결합형이 활용정보에 제시됩니다. 활용정보에는 비음화와 구개음화가 일어날 때의 발음도 제시되어 있으며,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을’과의 결합형도 제시됩니다.

〈보기〉

낮 발음: [낫]

활용: 낫이[나치], 낫만[난만]
「명사」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

밭 발음: [반]

활용: 밭이[바치], 밭을[바틀], 밭만[반만]
「명사」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

흙 발음: [혹]

활용: 흙이[홀기], 흙만[혼만]
「명사」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무기물과 유기물이 섞여 이루어진 물질.

- ① ‘낮’의 경우 발음정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흙’의 경우 발음정보를 통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낮’과 ‘밭’은 모두, 활용정보를 통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밭’과 ‘흙’은 모두, 활용정보를 통해 연음될 때의 발음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낮’, ‘밭’, ‘흙’은 모두, 활용정보를 통해 비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난방에서는 회수된 열로 데워진 물을 배관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열을 수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근래에는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열 수송에 사용되는 상변화 물질이란, 상변화를 할 때 수반되는 ㉠ 잠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상변화란,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때,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 어떤 물질이 이전과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열이 수반되는데, 이를 ‘잠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비커에 일정량의 얼음을 넣고 가열하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0℃에 도달하면 얼음이 물로 변하기 시작하여 비커 속에는 얼음과 물이 공존하게 된다. 그런데 비커 속 얼음이 모두 물로 변할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0℃를 유지하는데, 이는 비커에 가해진 열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아닌 상변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변화에 사용된 열이 잠열인데, 이는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숨어 있는 열이라는 뜻이다. 잠열은 물질마다 그 크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또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될 때에는 잠열을 흡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잠열을 방출한다. 한편 비커를 계속 가열하여 얼음이 모두 녹아 물이 된 후에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열을 ‘현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상변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열 수송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여 열병합 발전소에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으로 열을 수송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를 열교환기로 ㉡ 보낸다. 열교환기로 이동한 수증기는 열 수송에 사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하여 물을 데운다. 이 물 속에는 고체 상태의 상변화 물질이 담겨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이 섞여 있다. 이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은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이 데워져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이 되면 상변화 물질은 액체로 상변화하게 된다.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섞인 물은 열교환기에서 나와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이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동하는 물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교환기로 이동한 물과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은 공동주택의 찬물에 열을 전달하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하로 내려가면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하면서 잠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역시 찬물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 즉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해 온 물의 현열과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현열, 그리고 상변화 물질의 잠열이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 데 모두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데워진 공동주택의 물은 각 세대의 난방기로 공급되어 세대 난방을 하게 되고, 상변화 물질 캡슐이 든 물은 온

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재사용된다.

이와 같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을 사용하면 현열만 사용하던 기존의 열 수송 방식과 달리 현열과 잠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온수 공급관을 통해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열 수송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이때 상변화 물질 캡슐의 양을 늘릴수록 열 수송에 활용할 수 있는 잠열의 양은 증가하겠지만 캡슐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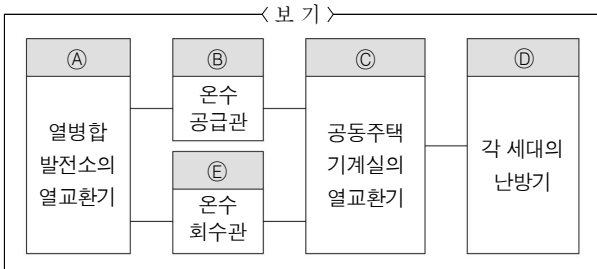
- ① 상변화는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된 수증기의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으로 공급한다.
- ③ 상변화 물질이 들어 있는 캡슐의 양은 물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 늘릴 수 없다.
- ④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여 열을 수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 ⑤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에서는 온수 공급관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를 기존 방식보다 높여야 한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질마다 크기가 각기 다르다.
- ②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숨어 있는 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④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 ⑤ 상변화하고 있는 물질의 현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18. <보기>는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올라가겠군.
- ② ㉡에서는 물에 있는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③ ㉡와 ㉢를 통해 이동하는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의 상태는 서로 같겠군.
- ④ ㉣에서 공동주택의 찬물은 현열과 잠열에 의해 데워져 ㉤에 공급되겠군.
- ⑤ ㉢를 통해 회수된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에서 다시 상변화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겠군.

19.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보고 <보기 2>와 같이 메모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A 기업에서는 녹는점이 15℃인 상변화 물질을 벽에 넣어 밤과 낮의 온도 차가 크더라도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보기 2>

벽의 온도가 15℃보다 높아지면 이 상변화 물질은 (㉦)로 상변화할 것이고, 이때 잠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 것이다.

- | | ㉦ | ㉧ | ㉨ |
|---|----|----|-----|
| ① | 액체 | 흡수 | 유지될 |
| ② | 액체 | 흡수 | 상승할 |
| ③ | 액체 | 방출 | 유지될 |
| ④ | 고체 | 흡수 | 유지될 |
| ⑤ | 고체 | 방출 | 상승할 |

20.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선물을 동생 집으로 보냈다.
- ② 그는 그저 멍하니 세월만 보냈다.
- ③ 그는 아들을 작년에 장가를 보냈다.
- ④ 관객들은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 ⑤ 그녀는 슬피 울며 정든 친구를 보냈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좌우간, 내가 그만침이나 청백했기 망정이지, 다른 동간들 당했던 소리 들었지? 누구는 맞아죽구, 누구는 집에다 불을 지르구, 누구는 팔대리가 부러지구.”

푸시시 일어서다가, 비 오는 뜰을 이윽히 내다보면서, 맹순사는 곰곰이 그렇게 아낙을 타이르듯 한다. 서분이에게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다 말 같지도 아니한 소리요 억지엿발명이었다.

“홍, 가네모도상은 그렇게 들이 굶어 먹구두, 되려 승찰 해서 부장이 된 건 어떡하구?”

㉪ “떠칠 가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뱃속은 무척 편하겠수. 여주루 내려갔든 기노시다상넌, 이살 해오는데, 재봉틀이 인장표루다 손틀 발틀 두 개에, 방안 짐이 여덟 개에, 옷이 옥상옷만 도랑꾸루 열다섯 도랑꾸드래요. 그리구두 서울루 뻘뻘이 와서 기계방아 사놓구 돈벌이만 잘 허문서, 활개 띄구 삽디다. 죽길 어찌 죽으며, 팔대리가 부러질 팔대린 어딴어?”

“그런 게 글썽 다 불한당질루 장만한 거 아냐?”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두, 만날 청백야?”

“아무럼,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두 두려울 게 없는 법야, 험.” 맹순사는 마침내 양복장 문을 연다. 연방 청백을 너던 끝에, 이 양복장을 보자니 얼굴이 간지러웠다. 유치장 간수로 있을 때

에, 가구장수 하나가 경제범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분이가 쪽지 한 장을 그에게다 주어 달라고 졸랐다. 못 이기는 체하고 전해 주었다. 그런 지 이틀 만에 이 양복장이 방 윗목에 가 처억 놓여진 것을 보았으나, 그는 내력을 물으려고 아니 하였다.

양복점 안에서 떼어 입은 대마직 국민복은 양복장보다도 조금 더 청백 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였다.

작년 초가을,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리는 파출소 건너편의 양복점에서 맞추어 입은 것이었다. 공정가격 삼십이 원 각순데, 양복을 찾아 들고는 지갑을 꺼내는 체하면서,

㉠ “얼마죠?”

하고 물었다. 지갑에는 돈이라야 삼 원밖에 없었다.

양복점 주인은, 온 천만에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밀어 내었다.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팔 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경제가 강화된 이삼 년, 육십 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버물 받는 것으로써 보태어 나왔다. 몇십 원씩, 돈 백 원씩 쥐어 주는 것을,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체 받아 놓기 얼마는지 모른다. 자청해 주는 것을 따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권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 “수히 값을 테니 백 원만…….”

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

술대접을 받기는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림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해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 해주었네 못 해주었네 하여도, 아낙의 웃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었다. 공교로이 그 뉘똥치마만은 기회가 없고서 8-15가 덜컥 달려들고 말았지만.

이렇게 그는 작은 것이나마 버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팔분의 자신이 있었다. 맹순사의 생각엔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돈이나 몇십 원, 돈 백 원 받아 쓰고, 쌀 나무며 찬거리나 조금씩 얻어먹고, 술대접이나 받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 될 것이 없고, 따라서 독직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적어도 독직이나 죄가 되자면, 몇만 원 집어먹고서 소위 팔자를 고친다는 등, 허리띠를 풀다는 등의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순사를 그만 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맹순사는 생활고로 인해 다시 순사가 되어 파출소로 첫 출근을 한다.

옛날의 순사와 꼭 같이 차리고 하였건만 맹순사는 웬일인지 우선 스스로가 위엄도 없고, 신도 나는 줄을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거나 지나치는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고, 그저 분승만승이었다. 더러는 다뽕 적외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려보기까지 하였다.

함부로 체포도 아니 하고, 위협도 아니 하고, 뽐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

걸으면서 곰곰 생각하여 보았다.

㉢ “전에 많이들 행악을 했대서?”

정녕 그것인 성싶었다.

“애먼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못 할 짓도 많이 했지.”

“쫄, 지금 와서 푸대접받아도 한무내하지.”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한때 잘들 해먹었

으니 인제는 그 대값음도 받아야겠지.”

무엇인지 모를 한숨이 절로 내쉬어졌다.

마침내 **XX파출소**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맹순사는, 백성들이 순사를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연유를 또 한 가지 발견하여야 하였다.

뚜벅뚜벅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에, 테이블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놀라 깨어 고개를 번쩍 드는 동안…….

맹순사는 무심결에,

㉣ “아니,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다시금 찻찻이 그를 바라다보았다.

노마.

볼때기에 있는 붉은 점이 아니더라면, 얼굴 같은 판사람인가 하였을 것이었다.

행랑아들 노마였다.

맹순사는 금년 봄, 지방 사는 홍파동으로 이사해 오기까지 여섯 해를 놀러, 사직동 그 집에서 살았다. 그 행랑에 노마네가 전 주인 때부터 들어 있었고, 왼편 볼때기에 붉은 점이 박힌 노마는 열두 살이었다. 근처의 삼 년짜리 학원을 일 년에 작파하고서, 저무나 새나 우미관 앞에 가 놀다간, 깃대도 받아 주고 빨라도 뿌려 주고 하는 것이 일이요, 집에 들어와서는 어멈 아범한테 매맞기가 일이요 하였다. 조금 더 자라더니, **우미관패**에 들어 가지고, 밤거리로 행패를 하고 다녔고, **사람을 치다 붙잡혀** 간 것을 몇 차례 놓이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노마는 겹언쩍은 듯, 그러나 일변 반갑기도 한 듯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리. 많이 점 가르켜 줍쇼, 나리.”

“동안끼리두 나런가, 이 사람.”

나이가 시킴이리라. 맹순사는 내색을 아니 하고 소탈히 그러면서 같이 웃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런 것이 다 순사니, 수모도 받아 싸지.’

하였다.

— 채만식, 「맹순사」 —

2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맹순사는 서분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② ㉡: 맹순사는 양복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가격을 물어보고 있다.
- ③ ㉢: 맹순사는 버물을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
- ④ ㉣: 맹순사는 과거의 행악을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부인하고 있다.
- ⑤ ㉤: 맹순사는 의외의 장소에서 뜻밖의 인물인 노마를 만나 놀라고 있다.

23. 다음은 밑줄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에 들어갈 인물의 심리를 작품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공간	질문	답변	심리
방	맹순사와 대화를 나눌 때, 서분이의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는?	재봉틀	㉠
	맹순사가 양복장을 보며 얼굴이 간지럽다고 느낀 이유는?	너물로 받은 것이어서	㉡
파출소 가는 길	행인들이 다시 순사가 된 맹순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흘겨 봄	㉢
	맹순사가 길을 걸으며 여러 생각들을 한 뒤 보인 행동은?	한숨을 쉬	㉣
파출소	맹순사가 노마와 인사를 나누며 보인 행동은?	내색을 아니하고 웃음	㉤

- ① ㉠: 자신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서분이의 부러움을 알 수 있다.
- ② ㉡: 팔자를 고칠 만큼 너물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맹순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질투심을 알 수 있다.
- ③ ㉢: 예전과 다른 눈초리에서 순사를 적대시하는 행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맹순사의 착잡한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 동간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노마를 무시하는 것에서 노마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맹순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혼란스러웠던 해방 전후의 사회 현실 속에서 도덕적 관념이 부족한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부정적 인물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제시한 뒤 그의 실상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 인물의 허위와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된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당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① 맹순사가 '다른 동간들'과 달리 자신은 '청백'하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부정적 인물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빠졌이' '돈벌이만 잘 허믄서, 활개 퍼구' 사는 사람에 대한 서분이의 말에서 혼란스러운 당대 사회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스스로 청백하다고 여기면서 '술대접'을 받은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맹순사의 모습에서 인물의 허위와 위선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해방 후 다시 '순사'가 되어 'XX파출소'에서 일하게 된 맹순사의 모습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우미관페'에 들어가 '사람을 치다 붙잡'힌 노마를 놓아줬던 맹순사의 모습에서 맹순사가 도덕적 관념을 회복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겠군.

[25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에 의하면 명제는 사실과 대응한다. 그래서 그는 명제와 사실을 비교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면 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았다. 이를테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할 때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사실과 비교할 때 거짓이 된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하여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이론을 통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있어 논리적 기초가 되는 ㉠ '요소명제'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요소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사실'에 대응한다. 그래서 그는 요소명제가 원자사실과 일치하면 '참(T)'이라는 진리값을,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F)'이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가능성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요소명제의 진리가능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2개가 된다. 또한 그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명제'라고 불렀는데,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명제는 각각 하나의 원자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명제의 진리가능성이 된다고 보았다. 결국 복합명제가 몇 개의 요소명제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요소명제의 수를 n이라고 보면, 복합명제의 진리가능성은 2ⁿ개가 된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진리연산은 요소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며, 진리연산의 결과는 복합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조건이 된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복합명제의 경우에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명제 p와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명제 q가 '그리고'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복합명제는 p와 q의 진리값에 대해 '그리고'라는 진리연산이 적용된 진리함수 $p \wedge q$ 로 표현할 수 있다.

p	q	$p \wedge q$
T	T	T
F	T	F
T	F	F
F	F	F

<표>

다. 진리함수 $p \wedge q$ 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이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도 참이 될 때에만 진리값이 참이 된다.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고안한 진리표로 만들면, <표>와 같이 p와 q의 진리가능성은 TT, FT, TF, FF가 되고, $p \wedge q$ 의 진리조건은 TFFF가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진리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다.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이다.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이다.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그 진리조건은 언제나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되겠지만, 이는 진리연산의 결과와 상관없는 표기이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이론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특정 이론을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다.
- ③ 명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다양한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④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을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명제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6.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소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이다.
- ② 두 개 이상의 요소명제가 결합하여 복합명제를 만들 수 있다.
- ③ 원자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요소명제의 진리값이 정해진다.
- ④ 요소명제의 진리값이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2개이다.
- ⑤ 요소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이다.

※ <보기>는 윗글을 참고하여, 임의의 두 명제를 각각 진리표로 만든 것이다. 27번과 28번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p	q	$p \vee q$
T	T	T
F	T	T
T	F	T
F	F	F

[진리표 1]

p	q	$p \rightarrow (q \rightarrow p)$
T	T	T
F	T	T
T	F	T
F	F	T

[진리표 2]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진리표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리연산의 결과인 진리조건은 TTTF이다.
- ② 복합명제의 진리값이 F일 때는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 ③ 진리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복합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이다.
- ④ p와 q의 진리가능성이 TT, FT, TF일 때에 진리함수 $p \vee q$ 의 진리값은 참이 된다.
- ⑤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명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 이 복합명제의 진리가능성은 2^3 개가 된다.

28.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진리표 1]과 [진리표 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진리함수는 서로 같겠군.
- ②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 것이겠군.
- ③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의 복합명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속하겠군.
- ④ [진리표 1]의 복합명제와 [진리표 2]의 복합명제에 적용된 진리연산은 서로 같겠군.
- ⑤ 원자사실과 대응하는 요소명제의 수는 [진리표 1]에는 1개, [진리표 2]에는 2개이겠군.

29.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플라톤은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라고 했다. 즉 그에 의하면 이데아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가리킨다.

- ① ㉠은 철학의 관심사로 삼아야 할 내용을 담은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한 것’이므로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표현한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은 실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진리조건이 언제나 ‘거짓’으로 표기되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은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에 ‘무의미한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바다 건너 먼 산맥을 넘어서 어느 삼림에 투숙(投宿)을 했다가는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한다

아침에도 나리꽃같이 흰 안개가 걷기 전부터 **사람들은** 언덕길에서 만날 때마다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했던 만 헤어질 때마다 전설같이 믿을 수 없는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폭매어 울었다

그 중 어떤 젊은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지구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었으리라고 단념을 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어느 아득한 성좌로 **멀리 떠나버렸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봄은 어느 성좌에서 **다시 오지 않나** 하고 모조리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부질없이 소곤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옥같이 흰 백매(白梅)**가 핀다고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느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앓았다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이 몸쓸 지구에 서서

도시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 신석정,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

(나)

- [A] 백두산에 도착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 자작나무 사이로
외롭게 걸려 있던 낮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갯까마귀들이 떼지어 날던 하늘 사이로
서서히 함박눈은 퍼붓기 시작했다
- [B]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눈 속에 핀 흰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 [C]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갔다
눈보라가 장백송 나뭇가지를 후려 꺾는 풍구(風口)에서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 [D]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갈수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을 오르며
우리들은 다시 천지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 [E] - 정호승, 「백두산을 오르며」 -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의성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며 해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에게 해방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화자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실에 대해 체념하거나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 ① '봄'에 대해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소망하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어떤 친구'가 '봄'은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말한 것에서 현실에 체념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봄'은 '다시 오지 않나'하고 '부질없이 소곤대'는 것에서 실천적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기만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옥같이 흰 백매'는 자연이 순환하듯 민족의 운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계절이 떠나간' '빈 지구'는 이상적 공간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절망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32. (나)의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B]: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C]: 화자가 대상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D]: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다.
- ⑤ [E]: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의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신제도학과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비용이론이라고 한다.

거래비용이론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용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즉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 또 계약 후 계약 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인 ‘시장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②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면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조직내거래비용’이라고 한다. 이때 시장거래비용과 조직내거래비용을 합친 것을 ‘총거래비용’이라고 하며, 기업은 총거래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 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조직내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시장거래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거래비용은 감소하지만, 조직내거래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총거래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

[A]

그렇다면 ㉠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이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인간적 요인에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 먼저,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의 과정 속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에는 자산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먼저 자산특수성이란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다른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가치

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산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거래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거래 주체들은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래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33. 밑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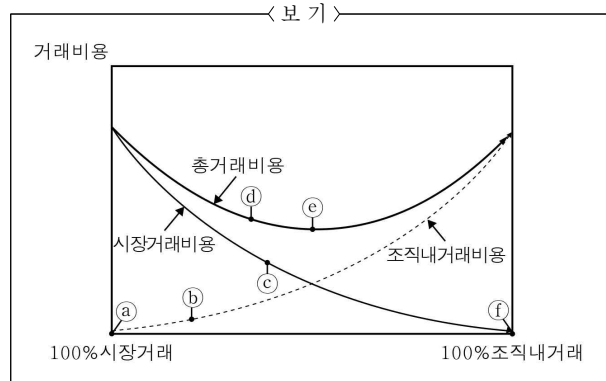
- ① 거래비용의 종류
- ② 총거래비용의 개념
- ③ 시장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
- ④ 기업의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
- ⑤ 기업 규모와 생산비용의 관계

34.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자기 장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여 도자기를 빚을 때
- ②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을 탐색할 때
- ③ 가구를 생산하는 사람이 원목 판매자와 재료 값을 흥정할 때
- ④ 소비자가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통신사와 약정서를 작성할 때
- ⑤ 제과 업체가 계약대로 밀가루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35.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조직내거래비용이 a에서 b로 증가했다면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겠군.
- ② 시장거래비용이 c에서 f로 감소했다면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겠군.
- ③ d에서 c로 총거래비용이 줄었다면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겠군.
- ④ 총거래비용이 c에서 최소가 된다면 이 지점이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f에서는 기업이 모든 부품을 기업 내부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장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겠군.

36. ㉔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례 1: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A 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볼트를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사례 2: 의료기구 생산 업체인 B 기업은 핵심 부품을 C 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과 조달을 위해 두 기업은 계약을 할 때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사례 3: D 기업은 새로 개발한 제품의 원재료를 외국의 E 기업에서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E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신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 ① A 기업이 조달하는 볼트의 자산특수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B 기업과 C 기업이 계약 조건으로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것은 거래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B 기업과 C 기업은 거래하는 핵심 부품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D 기업과 E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군.
- ⑤ E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D 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 문이겠군.

37. ㉑ ~ ㉕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 ② ㉒: 생각하고 헤아려 봄.
- ③ ㉓: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이나 그 됨됨이.
- ④ 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 ⑤ ㉕: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일조(一朝) 낭군(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야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性眞)이는 석교상(石橋上)
 에서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黃鸝) 수탉이 두 나래 등등 치고 째른 목
 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일점(四更一點)*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라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란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날란 죽어 도대선(都大船)* 되야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등등실 떠서 노자
 저 ㉑ 달아 보느냐
 임 계신 데 명휘(明暉)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暉)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테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황계사」 -

- *돈절: 편지, 소식 따위가 갑자기 끊어짐.
- *춘수가 만사택: 봄철의 물이 사방의 못에 가득함.
- *하운이 다기봉: 여름 구름이 많은 기이한 봉우리를 이룸.
- *사경일점: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인 사경(四更)의 한 시점(時點).
- *도대선: 큰 나룻배.
- *명휘를 빌리려문: 밝은 빛을 비취주렴.

(나)

온갖 꽃들 피어나 고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데, 푸른 숲 사
 이로 다문다문 보이니 참으로 알록달록하다. 들판에는 푸른 풀
 이 무성이 돋아 소들이 흠어져 풀을 뜯는다. 여인들은 광주리
 끼고 야들야들한 뽕잎을 따는데 부드러운 가지를 끌어당기는
 손이 옥처럼 곱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민요는 무슨 가락의
 무슨 노래일까.

가는 사람과 앓은 사람, 떠나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
 가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이니 그 따뜻한 기운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먼 사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왜
 이토록 민망하고 답답하기만 할까.

봄이 되어 붉게 장식한 궁궐에도 해가 길어지니, 온갖 일들로
 바쁜 천자(天子)에게도 여유가 생긴다. 화창한 봄빛에 설레어
 가끔 높은 대궐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노라면 장구 소리는 높
 이 울려 퍼지고, 발그레한 살구꽃이 일제히 꽃망을 터뜨린다.
 너른 중국 땅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니 기쁘고 흡족하여 옥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마신다. 부귀한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
 하리라.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호탕한 벼들과 더불어 꽃을 찾아다니는데, 수레 뒤에는 붉은 옷 입은 기생들을 태웠다. 가는 곳마다 자리를 펼쳐 옥피리와 생황을 연주하게 하며, 곱게 짠 비단 같은 울긋불긋한 꽃을 바라보고, 취한 눈을 치켜뜨고 이리저리 거닌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한 어여쁜 부인이 빈 방을 지키고 있다. 천 리 멀리 떠도는 남편과 이별한 뒤 소식조차 아득해져 한스럽다. 마음은 물처럼 일렁거려, 쌍쌍이 나는 ㉠ **제비**를 보다가 난간에 기대어 눈물 흘린다. 슬프고 비탄에 찬 사람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중략>

군인이 출정하여 멀리 고향을 떠나와 지내다가 변방에서 또 봄을 맞아 풀이 무성히 돋는 걸 볼 때나, 남쪽 지방으로 귀양 간 나그네가 어두워질 무렵 푸른 단풍나무를 보게 될 때면, 언제나 발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이윽히 보고 있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한스러워진다. 집 떠난 **나그네**가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

여름날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고생스럽고, 가을은 쓸쓸하기만 하며,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어 괴롭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세 계절은 너무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 변화의 여지도 없이 딱 막힌 것 같다. 그러나 봄날만은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따스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게도 하고, 때로는 슬프고 서러워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로 노래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흐느껴 울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건드려 움직이니 그 마음의 가닥은 천 갈래 만 갈래로 모두 다르다.

그런데 나 같은 이는 어떠한가. 취해서 바라보면 즐겁고, 술이 깨어 바라보면 서럽다. 곤궁한 처지에서 바라보면 구름과 안개가 가려진 것 같고, 출세하고 나서 바라보면 햇빛이 환히 비치는 것 같다. 즐거워할 일이면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이면 슬퍼할 일이다. 닥쳐오는 상황을 마주하고 변화하는 조짐을 순순히 따르며 나를 **둘러싼 세상**과 더불어 움직여 가리니, 한 가지 법칙만으로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다.

- 이규보, 「봄의 단상」 -

3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상적 공간의 묘사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부르는 말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언어유희를 통해 현실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명령형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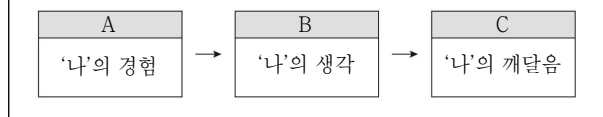
< 보 기 >

「황계사」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망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벗어나 임과 재회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①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한 것에서,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군.
- ②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라고 하는 것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알 수 있군.
- ③ ‘물’이 깊고 ‘산’이 높다는 것에서,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를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병풍에 그린 황계’가 ‘꼬찌요 울거든 오라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황화수’와 ‘도대선’이 되어 ‘떠서 노자’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0. <보기>는 (나)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A에서 자신과 달리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인 ‘사람들’을 바라본 경험은 B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군.
- ② B에서 ‘천자’가 봄의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봄을 대하는 부귀한 사람의 태도를 생각하고 있군.
- ③ B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과 ‘나그네’가 봄을 대하는 입장은 서로 대비되는군.
- ④ B의 생각들은, 봄을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C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군.
- ⑤ A의 경험으로부터 이어진 C의 깨달음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확장되는군.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은 인물의 처지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은 인물의 상황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은 인물의 외적 갈등을 해소하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와 대상을 연결해 주는, ㉡은 인물과 대상을 단절시키는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는, ㉡은 긍정적 인식을 투영하는 소재이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종인이 무녀를 보내어 요사한 모함을 저질러 놓고, 독재에게 부탁하여 황성 왕래하는 길에 주막을 차려 놓게 하였음이라. 지나가는 사람 중 왕진사 닥 하인이라 하면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술과 고기를 많이 먹이고 밥값을 적게 받으니, 내왕하는 하인들이 어디로 갈 때는 반드시 독재의 주막에 들르는 것처럼 되어 어길 때가 없더라.

무녀가 독재의 주막으로 돌아와 하는 말이,

“㉠ 이리이리하여 불을 질러 놓았으니 조만간에 하인이 이리를 지나가리라.” 하더라.

과연 며칠이 지나매, 소주 왕진사 닥 하인이 서간을 가지고 가는 중이라. 그가 주막 앞을 지나가자 독재가 깜짝 놀라는 척 반기며 오래 못 본 안부를 묻고, 술을 많이 먹이자 하인이 취하여 편지보를 독재에게 맡기고는 거꾸러져 잠이 드는지라. 독재가 편지보를 헤치고 봉한 것을 떼어 보니 편지 사연이 과연 그 말이며, 편지를 없애고 다시 글씨를 본떠 써넣되

“안부를 전하노니 집안은 무사하고 공직에 힘쓰라.”

라는 내용으로 하여 다시 봉하여 편지보에 넣었더라. 이튿날 하인이 떠나려 하여, 편지보를 내어 주니 의심 없이 받아 가지고 올라가더라.

하인이 왕정에 득달하여 서간을 올리되 왕시랑도 범연히 간과하고, 집안은 무사한 모양이라 답장을 봉하여 환송하였더니, 하인이 내려가는 길에 다시 독재의 집에 찾아들었는지라. 독재가 반가워하며 간곡하게 술대접을 하니 하인이 또한 술 힘을 이기지 못하여 대취하매, 독재가 답장 편지를 또 떼어 없애고 다시 사랑의 필적으로 답장을 위조하여,

“집안 괴변을 어찌 일부터 뜻하였으리까마는, 듣자오매 소자의 처로 인하여 심란한 일이 많사옵니다. 그 전에도 의심할 일이 많사오니 그 허물을 따로 묻지 않은 채 그저 집에 두었삽는데, 필경은 탄로나게 되었으니 소자의 사람 몰라본 불찰입니다. 복중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은 더구나 소자는 모르는 일이라, 어찌하여 거짓을 사뢰리까? 소자의 소견에는 그런 더러운 인물은 어찌 잠시라도 집에 두며, 죽어도 죄가 남사오니 내치면 저에게 덕이 될 것이오나 처분대로 하사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하인이 편지를 찾아보고 내려가 왕진사에게 올리니, 진사가 그 사연을 보고 안으로 들어와 오부인과 의논하였는데, 죽이자 하여도 거지중난(舉止重難)*하고 내쳐도 남에게 부끄러운지라.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마지못하여 즉시 송부인을 불러 앞에 세우고는 수죄(數罪)*하여,

“㉡ 네 내 집에 들어와 몇 해 아니 되었는데 내가 너를 믿고 내 집안 살림을 맡겼거늘, 요망한 무녀를 통하여 흉측한 태도로 음담패설을 주고받느냐? 네 복중에 있다는 자식에 대해서도 네 남편은 모른다 하니 그것은 어찌된 일이나?”

하고는 장쾌주의 편지와 왕시랑의 답장을 던지는지라. 송씨가 기색(氣塞)하여 한동안 진정하지 못하다가,

“자부(子婦)가 불초(不肖)하여 구고(舅姑)*님의 노함을 끼쳤사오니 산들 무엇하리까마는, 다만 신명을 생각하니 절통한 일이옵니다. 부모 양친을 섬여 세에 여의웁고 부양천지(俯仰天地)의지할 데 없사와 어린 동생과 외가에 탁신(託身)하온바 외숙부께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무한히 공경하며 대하여 나갔삽더니, 천우신조(天佑神助)하여 어진 시택을 만났사와 일평생을 모시고자 하였사오니, 이런 악명(惡名)을 입사오니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처분대로 할 뿐이로소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강제 결혼의 무산에 대한 보복으로 조종인에 의해 모함 받은 송부인은 시택에서 쫓겨나게 되고 홀로 아들인 갈용을 낳아 기른다. 어느 날 갈용은 살인 사건에 휘말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 명사관으로 파견된 왕시랑은 송부인과 재회하게 된다.

이때 송부인, 명사관*이 들어와 갈용의 초사를 받는다는 말에 오가는 말을 듣고자 하여 관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더라. 바라보니 그 명사관이 다른 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왕시랑이라. 이것이 어찌된 일이고 하여, 송부인이 여광여취(如狂如醉)하여 부지불각(不知不覺) 중에 몸이 절로 움직여 뜰 아래 들어서서는,

“첩은 죄인의 어미옵더니, 사람이 불민(不敏)하여 시택에서 쫓겨났사오니, 가장은 천 리 밖에 있사왔고, 첩을 불쌍히 생각하기는커녕 인편에 대어 죽여라, 내쫓아라 하오니, 첩이 어디 가서 살며 어찌 시택이 용납하리니까? 그런 연유로 이 지경이 되었삽는데, 듣사오매 명사관께서 명사를 잘하신다 하오니, 살육*은 차치(且置)하옵고 그 일부터 명사하옵소서. 첩의 무고함을 어찌 보지 못하고, 멀리 있음에도 그리 집안을 자세히 알면서 복중지물(腹中之物)이 자기 자식인 줄 어찌 모르며, 첩이 그전부터 수상한 것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 무슨 일을 보셨던고? 첩에게 죄가 설령 있거든 여기서 죽여 주시고, 만일 무죄한 듯하거든 소상히 명사사와 애매한 누명을 씌어 주옵소서. 복명지신(復命之臣)이 그만 일을 명사치 못하면 그 독을 자시웁기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시리까? 만일 첩의 말을 끝이 아니 들을 터이면, 여기 증거할 것이 있사오니 이것을 보옵소서.”

하고 송부인이 품에서 편지봉투를 내어 얹은 앞에 던지니, 왕시랑이 상혼실백(傷魂失魄)*하여 그것을 아니 보지 못할 터이라. 차차로 펴 보니 한 장은 자신의 답장이라 하나 사연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막측기단*하여, 다시 묻고자 하나 하인들 앞에 말하기가 편지 없기에 따로 분부하여

“㉢ 심기 불평하니 죄인을 물리라.”

하시니 갈용과 송부인이 함께 물러나오더라.

이 날 밤에 왕시랑이 일을 마친 후에, 통인 하나를 불러 초롱을 들고 호장의 집을 찾아 별당으로 들어가니, 송부인이 촛불을 돌우고 혼자 앉았다가 처연히 보고는

“㉣ 이 어찌된 일이지니까? 더러운 죄라 하신 터에 무엇이 답답하여 첩을 찾아보려 와서는 서 계시니이까? 모르는 자식을 낳았으니 더럽다고 하다가 죽이거라 내치거라 하와 다시 준절답장(峻節答狀)하오시고 다시 보려 하심은 천만뜻밖이로소이다.” 왕시랑이 다 듣고는

“이것이 어찌된 일ियो?” 라고 도리어 물으니, 송부인이 대답하여 “날더러 도로 물으시니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오리까?”

하매, 왕시랑이 대답하기를

“나도 내 죄를 아오이다. 비록 그러하오나 이 일은 알아보고 말 것이니, 그리 염려하지 마소서. 편지도 답장도 내 한 바 아니라, 난들 어찌 알았으리오? 이것이 운명사이니, 분명히 괴상한 용무를 꾸민 놈이 있는 모양이라. ㉤ 설마 그 놈을 잡지 못하리니까? 내 사환이 분주하여 오래 근친 못한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송부인이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의 발명도 대강된 듯하고, 왕시랑의 편지에 서운했던 것이 비로소 풀리는지라. 그런 줄 이제 알았으니 어찌 소회를 서로 풀어놓으며 정다운 이야기기 서로 없으리오?

- 작자 미상, 「송부인전」 -

- * 거지중난: 일을 함이 중대하고도 어려움.
- * 수죄: 범죄 행위를 들추어냄.
- * 구고: 시부모님.
- * 명사관: 중요한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 하는 관리.
- * 살육: 살인 사건에 대한 죄를 다스리는 일.
- * 상혼실백: 상심하여 제정신을 잃음.
- * 막측기단: 일의 시작을 헤아려 알지 못함.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전기적 요소를 통해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과장된 상황을 통해 인물의 해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왕진사 닥 하인이 주막을 지나갈 것이라는 무녀의 예측이 드러나 있다.
- ② ㉡: 송부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여 질책하는 왕진사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 주변 상황을 의식하여 질문하기를 미루는 왕시랑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왕시랑이 명사관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기를 바라는 송부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왕시랑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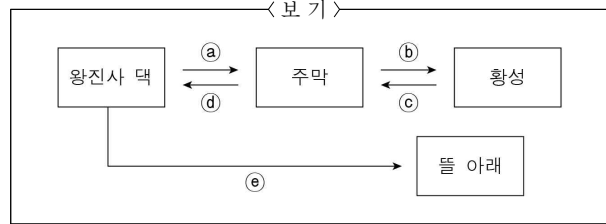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이 작품은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 외부의 인물에 의해 모함을 받게 된 주인공이, 남성 중심 사회의 현실적 모순에 의해 희생당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퇴출당해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후 입신양명을 이룬 남편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오해를 풀고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① 송부인이 왕시랑에게 명사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왕진사가 송부인을 수죄하는 장면에서,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왕시랑이 송부인에게 누명을 벗겨주기로 약속하는 장면에서, 왕시랑이 입신양명을 이룬 목적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녹제가 왕진사 닥 하인에게 술을 먹이는 장면에서, 가족 외부의 인물이 주인공을 모함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송부인이 왕시랑에게 자신의 처지를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에서, 과거에 송부인이 겪은 시련과 고난을 짐작할 수 있겠군.

45. <보기>는 윗글의 서간의 이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서간에는 집안은 무사하고 공직에 힘쓰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② 왕시랑은 ㉡의 서간을 통해 집안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 ③ ㉢의 서간과 ㉣의 서간은 모두 녹제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 ④ ㉢의 서간과 ㉣의 서간은 모두 송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 ⑤ 왕시랑은 ㉤의 서간의 내용을 송부인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